

주 오스트레일리아 대사관

종 별 : 보통

일 시 : 991221 0930

번 호 : 호주 26830 - D002209

수 신 : 장 관 (경협, 통아태)

발 신 : 주 오스트레일리아 대사

제 목 : 대외원자력협력 체계화

대 : 경협 26830-D90414

대호 표제건에 관한 주재국 관련사항 및 당관 의견을 아래 보고함.

1. 호주 관련사항

가. 호주 원자력 기술 및 정책 동향

- o 99.11.25-26간 당지 개최 제 9차 한.호 원자력정책협의회 결과 보고 전문
(호주 27200-D2068, 99.11.27) 참조

나.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 확보

- o 호주는 세계 전체 우라늄 매장량의 26%를 점하고 있으며, 96.3 현 정부
출범이래 우라늄광산 개발 억제정책(3 Mines Policy)을 폐기하고 우라늄
산업의 적극 지원 정책을 취하고 있음.
- o 98년도의 경우, 호주측으로서는 우리나라가 일본, 미국, EU에 이어 제 4위
우라늄 수출시장이며, 우리나라로서는 호주가 러시아에 이어 제 2위
우라늄 공급국임.

경협 본부장 조정관 통아태 지역심 *아서 *아태1심 *과기부

원본 : 경협
배부처: 과기부

보안준수 : 원본 수령부서 승인없이 복사금지

국장	74	시	493
인사	1999. 12. 22	과장	74
시각		서관	
과과	원자력협력과	심사	
과과	36 35 3		
과과			

99.12.21 10:45
정보화지원담당관실 통제관 QJ
Page: 1/2

493

- 우리나라의 98년도 우라늄 수입량(3,454톤)중 대호주 수입량은 988톤 (29%)

다. 아시아지역 원자력 협력 강화

- o 호주는 IAEA/RCA, 아시아 원자력협력포럼(FNCA), 아시아 원자력안전회의에 모두 회원국으로 참여중임.
- o 또한 한.호간에는 79.5월 발효된 한.호 원자력협력협정에 의거한 원자력 정책협의회가 현재까지 9차례 개최되었음.

2. 당관 의견

가. 호주의 경우, 외교통상부 국제안보국내의 원자력정책 소국(Branch)이 핵 비확산 정책, 핵물질 수출통제, IAEA 관련 업무, 양자 및 지역적 원자력 안전 관련 업무, 우라늄 수출 등에 관한 정책을 일괄 관장하고 있어 분야별로 복수 부서로 다지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와는 상이하므로 원자력협력 체계화 검토에 참고바람.

나. 우리나라가 호주로부터 98년에 수입한 우라늄은 전량 장기 계약분으로서 현 호주정부의 우라늄 정책은 앞으로도 2015년까지 15기의 원전 추가 건설 계획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우라늄의 장기 안정적 공급 확보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있다고 사료됨.

다. 역내 원자력 안전협력 추진과 관련, 호주는 그 명분에는 포괄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나, 자국이 원전 비보유국임을 들어 1차적인 추진 주체는 원전보유국이 되는 것이 적절하며, IAEA/RCA와 기능상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참고바람.(담당 : 참서관 정해욱). 끝.

(대사 신효현 - 실장)